

제 14강 초청 특강: ана키스트 김원식 선생에게 듣는 ана키즘

◆1교시 : ана키스트 김원식 선생에게 듣는 ана키즘 1

▲19세기 말의 조선의 정세

86살인데요. 내가 얘기를 하느냐하면, 내가 70세 ана키즘이라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조약골이 부탁했는데, 메모가 있는데, 신채호, 고토쿠 슈스이, 등등의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초창기 1885년 일본의 ана키스트를 데려다가 몇 사람이 했다고 하는 1885년에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더 ана키즘 사상을 넓히지 못하고 꺼졌어요.



19세기 말은 열강들이 제 맘대로 먹는 제국주의죠. 동양 뿐 아니라 중국은 더더욱 그랬죠. 일본의 불세비키도 들리는 소리에서 들려왔어요. 들리는 소리, 작은 통신에 의해서, 파리에서, 모스크바에서 오는 얘기죠.

일본의 천황주의라는 것은 명치천황, 지금 천황의 증조할아버지, 일본사람들도 나쁜 놈이라 그랬죠. 고토쿠 슈스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무쓰히토 [睦仁(목인), 명치천황, 1852.11.3 ~ 1912.7.30] 야, 1904, 1905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우리나라 북쪽하고 만주, 연해주에서 싸웠죠.

러시아가 남하정책에 의해 블라디보스톡을 먹고, 조선왕조를 위협해서 평안북도 다 러시아군이 와 있었어요. 확실히 아세요. 지금 내 친구가 옛날 1930년대 40년대 초,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백세정이라고 400미터 조선기록자로 나와요. 배재고등학교 학생인데, 서양놈이에요. 여름에는 빨개요. 보통때는 하얀데요.

아라사놈들이 사생아를 많이 낳다고 하더라, 지가 아라사 자손일게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거의 우리나라를 먹었죠. 광산권, 철도부설권, 봉천으로 가죠. 북경가려면요. 그 당시 러시아가 필요해서 봉천, 하얼빈 등에 철도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북경가려면 안동으로 가면 아주 가까워요. 러시아놈들이 저들이 필요해서 노선을 정한거죠. 남만주철도죠. 러시아가 전쟁에서 져서 일본이 남만주철도를 차지하고 북부중국을 침략해 들어가죠.

▲일본 ана키스트 1

일본과 우리나라 ана키즘의 다른점을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은 전쟁하느라 탄압이 심했죠. 불세비키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다만 사회주의 사상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로 피난갔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저희나라 위협이 아니므로 러시아의

사상을 들여다 그들이 했어요.

고토쿠 슈스이가 왔어요. 가기 전에는 아나키스트가 아니예요. 고토쿠 슈스이는 재미있는 게 많은데, 남 고향까지 가서 유적을 봤어요. 고토쿠가 거기 가서 확실히 아나키즘이다. 아나키즘아니면 안되겠다 천황 저놈을, 아나키즘으로 무장하고 일본으로 왔어요.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람은 가파야마상이라고 국제공산주의 나중에 스탈린이 만드는 제3인터내셔널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대죠.

천황 저 놈이, 2만명을 죽였어, 번 돈이 얼마지 알아, 그때 일본 주식회사가 없을때야. 거기서 번 돈이 지금으로 60억 달러를 벌었죠. 고토쿠가 계산한거죠. 전쟁은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정곡을 찌른 사람이 고토쿠 슈스이에요.

니가 뭘테 사람을 죽이고 배가 터지게 먹었느냐. 군수산업, 군수광산이 다 메이지 거예요. 고토쿠가 말하니까 저 새끼 죽여야돼.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거죠. 일본은 커가는데, 히라노마끼찌로라는 젊은 검사가 명령을 받고, 도대체 아나키즘이 뭐냐니까. 공부를 해라, 해와서 24명을 잡아넣었죠. 천황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사실 천황을 죽이려고 했어요. 무기도 준비했어요. 그렇다고 끝어다가, 범조문이 없는데 무슨 재판을 해요. 히라노마끼찌로가 검사장으로 자신이 써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읽는거야. 인정하지? 합니다, 안합니다. 두드려 패요. 박정희가 한 것과 똑같아요.

요즘 무죄라고 판명된 것 고토쿠도 다 무죄로 판명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연관되는 책을 가져올까 하다, 안가져왔는데, 고토쿠가 직접 발행한 것, 낡은 책이 있어요.

고토쿠 사형언도 나기 다음 다음 날 죽어버렸어요. 일본 아나키즘의 시작은 거기서 부터예요. 추운 겨울이 왔죠. 아나키스트들한테 1911년 언도나고 죽었는데,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죽었죠. 그래서 추운겨울처럼 아나키즘은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질 않았죠.

▲일본 아나키스트 2

그때는 대정시대예요. 명치가 죽었죠. 대정천황이 신하들이 회의를 하러 들어오면 갖다놓은 서류를 돌돌 말아서 보더라구요. 대정이 15년까지 있었어요. 다이쇼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생겨죠. 명치가 어떻게 탄압을 했는지 조금 풀어줘야 겠다 한거요. 정치는 그래요. 계속 조일수는 없어요.

박정희가 그래서 죽었죠. 폭동난 사람 죽여라 하니, 차지철보고, 김재규가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죠. 5-6년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아나키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스기 사카에 전기를 몇 번째 보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토쿠 슈스

이가 죽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종이 한 장에 감회를 쓴 것이 남아 있어요. 때는 춘 삼월 인데, 목메달아 죽었는데, 나는 제외되었다. 그래서 꽃잎에 춤을 추고 있다. 이것은 나도 죽을거다라는 예언적인 거예요.

오스기 사카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날 수 있었을까. 엄청난 사람이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남는 행동들이예요. 오스기 사카에는 마누라를 3명을 데리고 산 거, 여자들이 각자 자기의 섹스를 가지고 있지 누구에 종속되는 섹스는 아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죠.

다 같은 아나키스트들도 너는 너무해, 그때는 연령차이는 문제가 안되요. 7살 8살 더 먹은 사람도 같이 살고 그래요. 일본 공산당 당수인 미와자와 겐지도 19살 때 28살 먹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일본 문단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우리 나라는 봉건사회라 아직 해방, 정신적 해방을 못한 나라예요.

◆2교시 : 아나키스트 김원식 선생에게 듣는 아나키즘 2

▲오스기 사카에 1

오스기 사카에가 왜 죽게 되느냐면 모스크바에서 오라고, 그때는 1920년이죠. 한참 레닌이 스탈린체제 전, 마흐노(нестор іванович махно) 라고 무정부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 트로츠키의 붉은 군대로 아나키스트를 죽이는 때예요. 일본에서 볼셰비키하고 아나키즘하고 비슷한데가 있느냐, 이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 되요.

마르크스는 일당 독재로 자본주의로 싸워 이기면 된다. 바쿠닌은 안돼, 그러면 똑같은 놈돼. 소련이 똑같은 놈이 되어 망했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었죠. 아나키즘만이 수단입니다.

오스기 사카에는 천재적인데, 분위기를 띄워 연설하는데, 대단한 연설가이다. 소련에서 국제대회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여권이 안나오니까 유사복(劉師復)과 만나 가짜로 여권을 만들어 중국인으로 가죠. 그런데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파리로 갔다고 하죠. 프랑스 친구에게 또 얘기해서 메이테이가 있었죠. 거기서 좀이 쑤셔서 단상에 올라가 책상을 쳤죠.

통역은 중국인이 하고, 거기에서 순사들이 잡아갔죠. 나, 중국사람이다. 끝까지 버텼죠. 프랑스 경찰은 일본 경찰이 보낸 정보가 있어요. 오스기 사카에가 있으니 식별해서 찾아라, 얼굴들고 허릴 피고 큰소리 치고 일본으로 갔죠.

일본에 도착한 고베에서 도쿄가는 사이, 쌀 소동때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쌀 내놓아라는 폭동을 오스기 사카에가 선동했죠. 선동의 귀재요. 오스기 사카에가 나타나 한마디 이야기 하면 금시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 나오죠. 오사카에 가면 저기서 활동했다는 말이 있죠.

▲오스기 사카에 2

도쿄에 갔는데 잡아낼 법이 없죠. 1923년 9월 1일날 도쿄에서 지진이 났죠. 그때 사람들이 폭도화할 것이 두려워 일본 경찰에서 조선놈이 샘에다가 독약을 풀었다. 일본 사람을 모두 죽인다는 소문을 퍼뜨리죠.

6천명의 조선인이 죽죠. 엄청난 숫자죠. 그때도 오스기 사카에는 조금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조선인들 죽이는 건 안돼지. 오스기 사카에는 천황을 반대한 투쟁한 것이 아니므로 괜찮았어요. 자기 집에, 사치하고, 멋을 내고, 프랑스에서도 이상한 모자를 쓰고 와요. 일본 헌병대에서 저 놈을 죽이자고 하죠.

오스기 사카에는 나를 봐라는 식으로. 부인이 이토오 누에, 학교는 고등과, 초등학교 졸업

하고 2년 더 다녔어요. 학력이 모자라 도쿄 스지중이라는 주이자, 슈기샤라고 하면 순사들이 절할 때인데 이토오 누에하고 들어서 사는 집에 조카가, 6살 먹은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죠.

돌아오는데 헌병대가 와서 죽었죠. 일본서도 경찰이 죽었느냐, 군대가 죽었느냐 문제가 되죠. 증거를 없애려고 헌병대가 샘에다 던지고 시멘트 섞은 석회로 샘을 막았죠. 증거를 인멸하려고요,

저희들의 싸움에 오스기 사카에를 넣었죠. 경찰과 군대 중 서로 싸우다가, 경찰이 그것을 파내니 시체 셋이 나왔죠. 먼 친척, 소년시대 군인지망, 오스기 사카에는 군인지망이었죠. 세계 유명한 장군이 되겠다는 사람이예요. 유년학교에서 성적이 나쁜지, 품행이 나쁜지 오스기 사카에가 검토, 봉술은 잘해요.

봉술은 일본의 무술인데 작대기 하나로 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데, 오스기 사카에가 유명하게 봉술을 잘했대요. 재판에 일심판사가 다하고, 심문하죠. 귀하는 누가 죽었느냐. 아마가스 대위의 부하 이등상사가 죽었다하다가 10년 연도가 떨어졌죠.

▲오스기 사카에 3

1년 있다가 아마가스가 형무소에서 사라졌어요. 1931년 만주사변나고 만주국에 가서 만주국을 지휘한 놈이 아마가스예요. 독재국가를 하려면 별 거짓말을 하는 법이죠. 박정희가 별별 음모를 다 했지요. 그 나라를 그런 식으로 통제하려면 필요해요. 오늘 CIA 가 그런것 하는데요. 시리아와 북한의 관계도 거짓말이죠. 미국이 만든 것도 그렇죠.

위폐사건, 6자회담 그것 때문에 안됐죠. 미국이 조작한거요. 위폐는, 한겨레에 난거예요. 미국돈은 위조할 수가 없대요. 종이가 특수하고, 인쇄술이 특수하죠. 홍콩 운운하는건 조작이죠. 조작한 놈은 호지부지 언론이 편들어주니까요.

30년 전, 대한민국의 국장급의 존재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이중국적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뭘 속썩여, 별하나 그리면 되는데, 미국 국기에 별 있잖아요. 국장급들이 그랬대요. 지금 그래요. 지금 쇠고기 운운하는 것은 미국의 일개 주로 남지 뭐하러 골치썩여, 지금도 친미 국가인데. 미국과 우리가 동맹국가라로 하는데, 여기서 난리나면 미국이 안와요.

동맹이 안와요. 미국에 조공을 한단 말을 한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조공이죠. 이영희 선생이 미국에 대한 것은 완전히 종주국의 관계다라고 했죠.

▲오스기 사카에 4

오스기 사카에는 죽었죠. 그 사람의 자서전이 여기 나왔어요. 그건 39살까지 못살았는데, 30살 전후에서 쓴거예요. 원서를 가지고 있어서 대조했더니 그거더라구요. 세사람의 여자 관계도 썼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고, 대한 민국 잣대로 보면, 오스기 사카에의 일생을

쓴, 유명한 ана키스트인데, ‘자유를 향한 질주’인데, 일상의 자유, 일본의 자유, 다중이라도 좋고, 일본의 그 말 어려운 말이에요.

중국의 노신이 좋은 말이 없을까. 중국은 한자의 나라인데 40가지를 썼어요. 다중, 다 안 맞아서, 시민운동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스기 사카에가 지나고

◆3교시 : 아나키스트 김원식 선생에게 듣는 아나키즘 3

▲현재의 일본 아나키스트

하타 슈조가 나와요. 오스기 사카에가 너무 유명해서요. 사상적으로 오스기 사카에를 이어받았는데, 목사예요. 목사들이 그 사람을 먹여 살렸어, 아나키스트를. 죽어서도 교회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아나키즘 선전을 해서 교회가 안돼.

하타 슈조가 죽었을때, 목사가 장례를 지내줬다. 일본의 아나키즘은 1938년 3월 15일, 그 날을 기해서 일본이 제 3차 공산당이 전원 체포되고 그 날을 기해서 아나키스트는 존재를 할 수없었고, 그것이 만주사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죠.

해방된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노인들만 남아서 옛날 이야기하느라고 판이 안돼. 오스기와 함께한 사람들, 조약골도 아는 국민문화연구소의 영감이 같은 연대인데, 이와사 사타로 만나면 뭘해, 옛날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우익화되고,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이 뭘 했냐. 나하고 직결되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 반핵운동, 원자탄, 원자력 발전소 모두 안돼.

일본서도 1954년에 원자탄 수소탄은 안돼를 반핵하는 사람하고 했어요. 다가게 인사부로가 사무국장이야.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부로도 힘든데, 딱 만났어요. 열사람 아나키즘은 열 사람이 다 달라요.

적으로 설정한 놈, 일본의 천황,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 1972년 공산주의 사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 중앙집권제는 환경을 파괴한다. 1992년 우이 준(宇井純)이라는 젊은 학자가 동경대학 강사요. 나보다 나이가 아립니다. 그 사람이 1972년에 일본의 미나마타병, 세계 공해의 가장 현저한 예가 되고요.

▲중앙집권제는 환경을 파괴한다

미나마타병은 1972년에 세 사람을 데리고 스톡홀름에 세계환경대회에 나갔어요. 삼십대 청년요 이준열사가 회장에도 못 들어갔다는 것처럼, 못 들어갔어요. 그때 중앙집권제는 환경을 파괴한다. 중국, 북한, 소련, 자본주의사회도 파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이 준(宇井純)이 작년에 죽어 편지를 했는데, 65살 정년될 때까지 전임강사로 있었어요. 정년퇴직하는 날 친구들이 모였죠. 참 너 잘했다. 나중에 너희들은 섭섭한 소리한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었다.

이건 아나키즘이에요. 내가 아나키즘과 어떻게 만났느냐, 일본에서 반핵운동을 하니까, 나는 한국에서는 하는 척 안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일본 말 참 잘해요. 당신 진짜 조선 사람이야 할 정도요. 다카기 진사부로(高木仁三郎)라는 콤비로 7000명이 모인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설을 했어요.

토다 키요시(戸田清)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비사에서 내가 번역해서 냈어요. '환경정의를 위하여' 녹색평론사에서 '환경과 평화'란 책을 냈는데, 다 토다 키요시가 쓴 책이에요. '환경정의를 위하여'는 누구에게 바친다라는 것이, 유명한 아나키스트에게 그 책을 바쳤고, '전쟁과 평화'는 환경학과 평화학원, 나는 아나키스트라고 한 책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아나키스트인줄 알았지만 나는 몰랐어요. 결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나키스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활동을 한다면요. 장담하죠. 생산력주의라고도 하는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하려던 것이 생산력주의죠.

많이 해서 자본주의는 부자가 되고 사회주의는 나눠먹자, 거짓말이죠. 일본 아나키즘 활동가들은 몰랐다는 거죠. 토다 키요시나 학자가, 다카기 진사부로와 갔는데, 책을 주면서 이게 아나키즘입니다. 보니까 다카기가 처음 나에게 김원식 선생에게 드립니다. 하고 준 책하고 같아요.

그게 녹색혁명에서 출판되었죠. 일본에서는 핵가지고 돈 벌고, 세계를 정복할 생각하고 있는 소련과 미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나키스트이다. '환경과 평화에게'는 미국놈이 세계의 도둑놈이다. 그 자료만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

나하고 얘기하려면 두 가지 책을 읽으시오. 그것이 아나키즘예요. 무카이 켄오(向井 孝) '폭력론 노트' 비폭력 직접행동론을 부르짖었어요. 아나키즘도 대등시대는 폭력, 테러죠. 2차 세계대전 후 아나키즘 자체가 전술변경을 한거예요.

톨스토이즘에서 간디즘으로 왔다는 거죠. 간디는 비폭력이죠. 소금행진 들었죠. 소금없으면 못살죠. 거기에 영국이 소금을 받았죠. 간디가 소금없이 못 산다. 나하고 소금 만들러 가자. 영국이 잡아가되도 사람이 자꾸 많아져서 떼가 되죠. 간디가 바닷가에 가서 천일염 만 들어서 왔는데, 영국이 손을 못댔어요.

비폭력주의가 이겼다는 선례를 남긴 사람이죠. 무카이 켄오의 비폭력주의, 오스기 사카에나 고토쿠 슈스이가 폭력을 실천할 때 무카이 켄오는 비폭력을 주장한거죠. 국제적으로 엄청난 책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나는 몰랐어요.

이것은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 라는 미국 사람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거죠 번역한 사람이 고소이와 사구로 라는 사람인데, 내 얘기를 들겠다고 해서 조약골이 통역해

서, 했는데, 고소이와 사구로의 최근 책이 나왔어요. 1980년대 말부터 미국 빈민굴에서 살아요. 직업은 그림 큐레이터예요.

이건희의 그림으로 해먹은 애들이 아니고 그림을 알고 소개하는 것으로 살았어요. 근본은 아나키스트예요.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어머니가 아나키스트, 아버지는 스페인 전쟁때, 운전기사했죠. 아나키스트를 어머니, 아버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천재예요. 고등학교 때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글씨, 나폴레옹의 로제타석의 글을 읽어요. 지금도 못 읽는 글자가 많거든요. 그것을 읽는 전세계 모임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것을 풀었어요. 협회가 있죠.

너 학비걱정하지 말라, 그거하는 교수있으니 넣어준다. 젊은 놈이 장학금 때문에 해? 나 안해, 그리고 아나키즘 연구를 한거죠. 데이비드 그레이바 '폭력론 노트'를 하면서 상계동 모임이 있는데, 데이비드 그레이바가 나중에 보면 아나키즘은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하고 다르죠.

아나키즘은 사회적 개인주의라고 할까요. 사회성을 떠날 수없는 것이 아나키즘입니다. 각자 자기 아나키즘을 하는데, 조약골 아나키즘은 조약골이 창출한 아나키즘예요 그런 면에서 존경하고, 나대로의 아나키즘이 있어요.

거기에서 연합을 잇으면 안된다. 세가지뿐이다. 연합하되 자유연합, 들어가서 공산주의처럼 피라미드 있는 것, 자본주의 이견희 밑에 조화력이 있는거 아니다, 환경정의를 위하여를 보면 독재자는 기업의 CEO 가 더 독재자라고 해요. 아나키즘에 입문하는데, 입문하고 내가 거기 미쳤어요.

◆4교시 : 아나키스트 김원식 선생에게 듣는 아나키즘 4

▲스포크(spoke) 회의

무카이 꼬오는 5년전에 죽었고, 나이는 나와 비슷해요. 부인은 28살 차이나는 부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집에서 식사하면서, 나의 아나키즘에 절대로 반대하는 아내가 있어요. 82살예요. 손님대접하느라 그랬는지, 우리는 무신론자다, 이 사람은 종교가 없다. 한가지 교가 있다. 누구냐? 무카이 꼬오다.

내가 무카이 꼬오에게 미쳤어요. 죽고나서 책이 나와요. 일본이 고소이로 사부로가 속한 45을 전후한 새로운 아나키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에 무카이 꼬오는 더 말할 것 없이 정확한 얘기를 해줬다고 세 페이지나 나오죠.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는 하는 짓마다 그래요. 시애틀회의에 가서 위촉을 받고 기록만 해서 오너라, 블랙블럭에 대한 것을 보고했고, 이 사람이 주로 보고한 것은 마스카스카르섬에서 실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가 된 것은 친한사람들끼리 만드는 그룹.

서로 한두번 도둑질 경험도 있고, 친한 사람있죠. 과부가 녀두리하는 식으로, 그거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 결여라고 보죠. 뭐든지 말하는 친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아나키즘 얘기해라

7년전에 만들었죠. 내가, 이 사람을 스포크 회의를 제의 했죠. 그런 사람들끼리, 자전거살이 스포크거든요. 하나의 힘이 아니라 바퀴와 연결되어서 하나의 힘을 나타내거든요. 에프니크그룹에서 스포크 회의를 국제적이거나 국내적이거나 상관없다고 하죠.

한 책에 그 영감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남김없이 말했다. 나는 죽기 전 그런 정도인 줄은 몰랐죠. 참 특이한 사람이다. 세계적으로 영어로 써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평가에 들어갈 줄 몰랐다.

나도 우쭐해졌죠. 나도 옳은데를 찾아갔구나. 마다카스카르 섬에가니 순사가 없고, 면사무소가 없는 곳이 있더라, 면사무소없이 어떻게 살아, 순사가 없으면 되나? 그런데가 있어요.

우리 국가를 폭력으로 간주해서 폭력 중 가장 큰 폭력이 국가 폭력이에요. 그걸 허물어뜨리려는 사람이 국가를 만들지 않죠.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아나키의 출발이다. 두려워할 거 없다.

아나키를 여기서 만들어요. Do it yourself자기가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니가 해라. 지금부터 백년전에 Do it myself 하면서 죽었어요. 이회영도 그래요. 계획을 세워 56세가

되는 이회영이 일선에 나가서 잡혀 죽었어요. 이회영의 손자가 이종찬 안기부부장하고 서울 시장하려는 사람,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가지고 군사독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채호의 손자, 극히 사적인 얘기인데, 아들은 죽었고, 이남덕 여사가, 자기 아들이 성균관대학 나왔는데, 이종찬이 안기부장 할 때 안기부에 취직시켰죠.

▲한국의 ана키즘의 과거와의 단절

한국의 ана키즘은 혈맥적으로 끊어졌죠. 일본도 할아버지가 하고, 오스기 사카에 꾸즈아예요, 묘지 많이 해놓는데, 꾸즈아라는 지방의 오스기의 사카에 묘를 만들었죠. 고토쿠의 묘가 없었는데 해방후에 만들었죠. ана키즘은 삼족을 멸했어요. 공산주의는 평화주의자예요.

일본의 ана키 전통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3천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혁명이나 연구혁명이냐의 말이 나와야 해요. 서로 연대하잖아요. 힘이 되었을 때 폭력을 써서는 안되는 말이 비폭력이거든요.

그때가도 비폭력이예요. ана키즘도 레닌이 했던 정치혁명, 경제혁명, 사회혁명이 되는데 ана키스트는 누가 결정해줘서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가 해야되죠. 여기를 모르면 쳐다봐요. 언제하죠. 나쁜 놈 천지인데.

서울서 교통이 제일 복잡한 곳이 롯데백화점 앞이에요. 롯데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나와서 버스, 차 길을 정리하죠. 오후 6,7시 되면 싹 들어가요. 그럼 그런 무질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어요. 이게 ана키즘이 아닌가. 당사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잘 빠져나가요. 순사들이 있을때는 되고 없을 때는 안되지. 하다가, 그 사람들이 순서를 만들어요.

해방이후 내 고향에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맞아죽을까봐 달아났어요. 면사무소도 지서도 없어졌죠. 몽둥이들고 나섰던 사람들이 도둑놈은 지켜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했어요. 미군이 와서 총내놔 해서 질서를 지켰죠. 그것은 ана키즘이죠.

아나키즘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창조하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은 국가없이 산다는 것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교육없는 사람이 빨리 알아들어요. 교육받은 사람은 배반자 들어요.

사카에의 경우도 한두달 쉬면 내가 왜 쉬지? 얻어먹고 나왔으니까 뭘 만들죠. 이것은 자위행위다라고 사카에게 말하죠. 좌익에서 말하는 노동자, ана키즘의 노동자가 다르죠. 메이테이는 ана키가 시작한거예요. 헤미어라는 인텔리가 있어요. 내가 반역자다, 나에게 질문하라는 책이 있어요.

헤미어가 7,8권의 책을 냈는데, 아차하면 내가 반역하는 놈이라고 하죠. 누구를 위해서, 말로만? 무엇을 하느냐. 진실로 돈은 버는데 굶주리는 사람은 많아진다. working poor. 가난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전국에서 북해도에서 그 움직임이 진행되요.

조약골도 만난 친구들이죠. 팜플렛을 만든거죠. 저항자, 누구한테 저항하느냐. 이 사회를
폭력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저항하자. 우리 친구들이예요. 국제적인 관계를 만들었죠. 코리아
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대표예요

